



2026. 9. 21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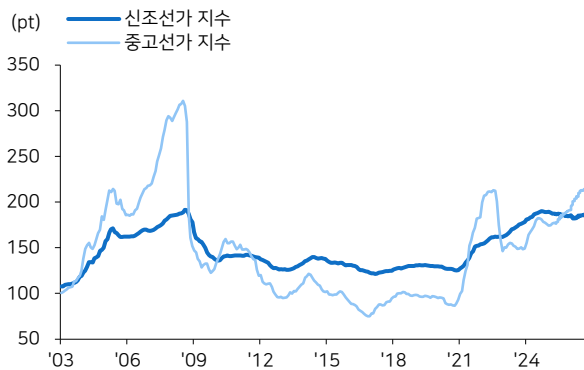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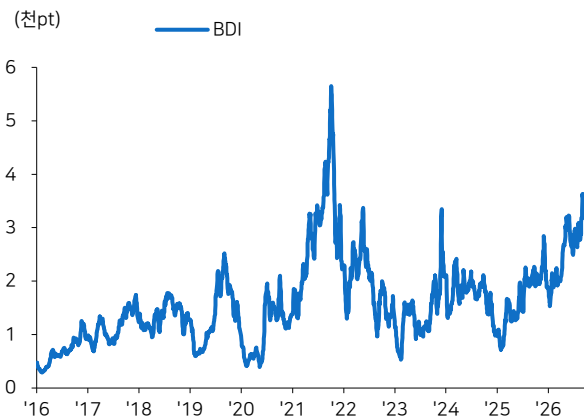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8.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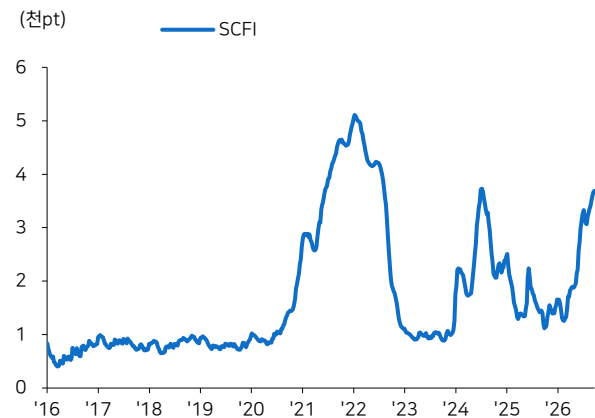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336.0p (+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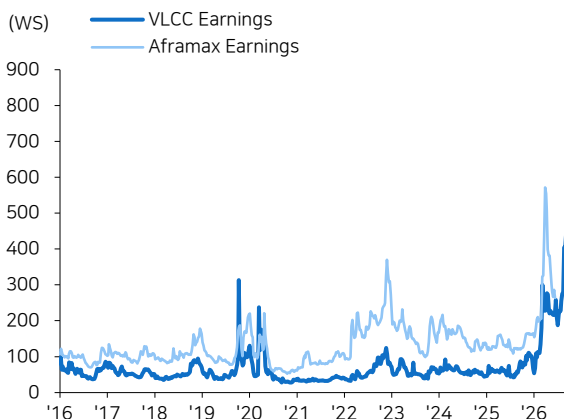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87.8 (+25.7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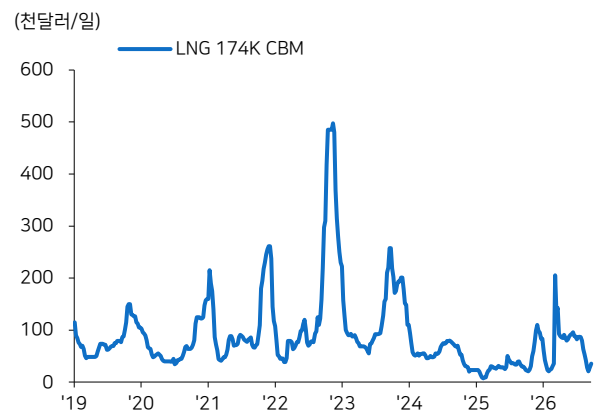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5.0WS (+147.6 WoW)



LNG Spot 운임

35.8천달러 (+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미 국방 고위협의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한 협력 강화" (연합뉴스)

<https://zrr.kr/225FR5>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COTP) 전환 계획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양국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동맹 현대화와 정상 공동설명자료 및 제57차 SCM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조선·항공 MRO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고 전해짐. 이번 KIDD는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회의로, 한미 양국은 한국의 조선 역량과 조선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짐.

Senator sees opportunity to get 250-ship US-flag fleet into US military spending bill (TradeWinds)

<https://zrr.kr/QARZmJ>

미국 상원의원 Mark Kelly가 국방수권법(NDAA) 협상을 통해 250척 규모의 미국 국적 선대 조성을 위한 예산과 핵심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됨. 하원은 해사안보신탁기금과 미국 조선소 건조 인센티브 등 Ships for America Act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전략상선대 예산은 별도 협상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짐. Mark Kelly는 미국 국적 선대 확대를 위해 정부 화물의 미국 선적 운송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최종 자원 조달 방식은 양원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한국가스공사 참여 'LNG 캐나다' 2 단계 투자 임박...생산량 2,800 만톤으로 확대 (더구루)

<https://zrr.kr/nS2RwE>

한국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LNG 캐나다 프로젝트의 2단계 확장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 최종투자결정(FID)에 이를 전망이다. 승인 시 연간 생산능력이 1,400만톤에서 2,800만톤으로 두 배 확대된다고 보도됨. 한국가스공사는 내부 투자 절차를 진행 중이며, 2단계가 완료되는 2030년대 초반에는 LNG 도입 물량이 연간 70만톤에서 14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전해짐. 태광, 성광벤드 등 국내 기자재 업체들은 선행 발주를 통해 이미 2단계 공급망에 진입했으며, FID 이후 본 발주 물량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오션, 차세대 잠수함 '오션 2000' 전면예...칠레 수주전 '고비' (더구루)

<https://zrr.kr/j64al6>

한화오션이 차세대 수출형 잠수함 오션 2000을 앞세워 칠레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을 핵심 목표로 중남미 잠수함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고 보도됨. 오션 2000은 장보고-III 기반의 2,000톤급 수출형 플랫폼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NATO 표준 개방형 아키텍처를 적용해 장기 작전 능력과 무장·전투체계의 유연한 통합을 지원한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칠레 국영 조선소 ASMAR와 공동 설계·현지 건조, MRO 및 남극 인프라 협력을 포함한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단순 함정 수출을 넘어 현지 방산 생태계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화 필리조선소 "美해군 함정 건조 재개 목표...인력 2 배 확충 완료" (더구루)

<https://zrr.kr/NXhiMC>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현지 인력을 2,500명 규모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교육 투자를 강화하며, 미국 내 조선 생산 거점과 함정 건조 역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미 해군은 형 카오 해군장관 직무대행 등이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한화의 투자와 생산능력 확충 현황을 점검했으며, 함정 건조 일정 정상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짐. 한화는 50억 달러 규모 증설 계획에 따라 행정 기능을 별도 건물로 이전하고 도크 2개, 안벽 3개, 블록 생산기지를 추가 조성해 향후 5년 내 현지 인력을 7,000~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프랑스 뷰로베리타스(BV)와 LCO₂ 화물처리시스템 기술 협약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lF8uhc>

한화오션이 프랑스 선급 Bureau Veritas와 4만㎡급 차세대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의 화물처리시스템(CHS) 공동 개발에 착수하며, 대형 CCUS 해상 운송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섰다 보도됨. 양사는 CO₂의 삼중점 특성을 고려한 압력·온도 제어와 대용량 저장탱크, 배관, 재액화 설비 등을 공동 설계하고, IMO IGC Code와 선급 기준에 따른 안전성 및 규정 적합성을 함께 검증한다고 전해짐. 이번 협력으로 한화오션은 LNG·LPG 운반선에 이어 4만㎡급 LCO₂ 운반선의 기본승인(AIP) 기반 기술을 확보해, CCUS 확대에 따른 유럽·북미 친환경 가스선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